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Work Condition of Married Women

-Focus on the Comparision of Salaried with Self-employed-

계명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홍 성 희

Dept. of Family Welfare,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g-Hee Ho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salaried women with that of self-employed,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both of them.

The sample consisted of 176 salaried women and 123 self-employed from data of 1998 Korea Household Panel Study, and analyzed into Frequencies, Percentile, t-test, χ^2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self-employed had larger proportion of home-based worker, worked more hours, and had more earnings than the salaried, and that the job satisfaction of salaried worker were higher than that of self-employed.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total working women were educational level, perception of present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number of earners, weekly working hours, and their income. In case of salaried worker, educational level, health status, number of earners, weekly working hours and their income had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while the factors contributing job satisfaction of self-employed were health status, region, weekly working hours, and income.

I. 서론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이 적어지고 있으며, 소비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증대욕구가 커지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능력개발이나 자아실현 등의 성취동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생애관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의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개발되고, 성인 남성 노동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는 사회의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과 여성 자신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는 높으나, 기혼여성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하다. 즉, 가정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참가되는 부수적인 역할로서 인정되며,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에게 취업자로서의 역할을 선택적으로만 인정하려는 태도가 팽배하여 역할분담이나 역할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사회에서도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면서도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부담은 오직 여성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김정훈 등, 1996).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에 비해 저조하며, 20-24세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25-34세 연령층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의 결혼, 출산 및 이에 따른 가사와 육아부담 등의 여성적 책임이 경제활동 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잘 나타낸다(김순미·김혜연, 1998; 김태홍, 1993).

또한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선택한 경우에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데서 갈등이나 과중한 노동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갈등 및 노동부담은 이들의 직업생활 및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경미, 1995; 김경신 등, 1996; 조희금, 1998) 반면, 기혼취업여성은 취업으로 인한 가시적, 잠재적 소득증대를 갖게 되며, 소득의 증대는 주관적 복지감에 기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감을 얻게 되고 직업만족 및 나아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구조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인적 특성 및 고용특성이 상당히 다르고, 또한 노동시장의 진입 및 퇴출시기와 방식, 소득 및 취업조건, 취업에요인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직업만족도 또한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직업에 따라 소득과 안정성, 전망, 일의 자율성 및 독립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여성취업자의 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 취업특성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직종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각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변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것은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효과와 취업 상의 문제점을 밝혀줄 수 있는 시도가 된다. 나아가 어떠한 요인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기혼취업여성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기혼여성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혼취업여성의 노동특성과 현황

기혼취업여성의 노동특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양적 측면과 연령별 분포, 그리고 취업동기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김순미·김혜연, 1998).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에 따라 분석해 보면, 결혼·출산 등의 여성적 책임이 요구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후 30대 후반에 들어서 다시 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한 1985년부터 1990년 동안의 참가율 곡선에서는 20-25세, 25-29세 여성의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참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000, 김태홍).

이때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이유는 출산과 자녀양육 등 여성적 책임의 요구저하와 그에 따른 시간적 여유, 취업을 통한 적성과 능력개발 등을 들 수 있지만, 생계유지나 가계경제 수준의 향상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통계청, 1993). 즉, 여성의 취업동기 중 성취동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에 어렵지 않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차적인 성격을 갖게 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안드레 저,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한편, 기혼여성의 고용상태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는 기업 내 신분과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근무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를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로 구분하고 있다(통계청, 1999). 상용고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

이 안정적인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봉급생활자와 계약기간 면에서 가장 근접하므로 여기서는 봉급생활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198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통계청, 1985), 1995년을 정점으로 증가에서 하락으로 반전되어 1999년의 상용직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24.9%이다(통계청, 2000). 이는 판매서비스직 등에서 저학력 인력을 중심으로 한 상용직이 임시고, 일용고의 취업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경기침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김태홍, 2000).

여성 상용직근로자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1985년에는 대부분이 29세 이하이며 미혼인 여성들이었으나 이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25-29세의 여성상용고는 1998년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대졸여성에게 상용고 취업기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과 함께 퇴직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1998년에 다른 연령층의 여성상용고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30-39세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구성비는 오히려 22.6%로 증가하였으며, 4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 상용직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령으로 볼 때, 상용고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상용직근로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1985년에는 49.7%가 고졸, 36.0%가 중졸이하로 전반적으로 저학력의 구성비가 높은 편이나,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높았다. 85년 이후 중졸이하의 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의 경우 여성상용고의 27.3%가 대졸, 17.1%가 전문대 졸업자였다.

여성 상용직근로자의 취업특성을 보면, 1985년에는 여성상용고의 43.9%가 제조업, 25.8%가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13.5%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199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에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여성상용고가 감소하였는데, 그 결과 1999년 여성상용고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에 36.2%, 제조업에 27.7%, 금융보험·부동산업에 16.4%, 도소

매 및 음식업에 12.2%가 종사하여, 여성은 상대적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도소매음식업, 금융보험 부동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자영업 부문은 고용, 실업의 흡수, 노동력의 유동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산업 변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대부분은 소규모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사업 성장률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또 사업상 실패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인 기업가형과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구성된 생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생계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류재우, 최호영, 1999).

여성 자영업자의 수는 198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의 전체 자영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28.9%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에는 여성 자영업자도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1999년에는 여성자영업자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비율이 31.6%로 다시 높아졌다.

여성 자영업자의 연령을 보면, 1985년에는 40세 이상이 62.2%였고 1999년에는 69.2%로 40세 이상의 중 고령층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 자영업자의 학력분포는 1985년의 경우 중졸 이하가 85.3%로서 대부분이 저학력 집단이었으나, 85년 이후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1999년에 전문대졸 이상이 11%를 차지한 반면, 중졸 이하는 59.4%로 감소되었다.

취업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가 85년에 53.1%, 1999년에는 49.3%로서 과반수 정도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여, 봉급생활자의 취업업종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부터 비농업분야의 자영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 중 더욱 놀라운 것은 자영업자 중 여성의 증가이다. Devine(1994)은 여성자영업자의 특성을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 76년부터 91년까지의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농

업부문 여성자영업의 비율은 1976년의 4.1%에서 1990년의 6.7%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은 봉급생활자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75년 이후 45-54세, 55-64세의 연령층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성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거의 유사하나, 1990년 여성자영업자 중 전일제로 1년동안 중단하지 않고 일한 사람의 비율은 45.4%였던 반면, 봉급생활자 중에서는 52.7%가 전일제로 연중 일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에 비해 전일제의 비율이나 연간 근로의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자영업자가 시간제 근로를 했으며, 이는 여성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봉급생활자보다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자영업종사자가 봉급생활자보다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컸으며, 관리직 종사자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여성자영업자는 여성봉급생활자보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자영업자의 55%가 서비스산업 종사자였다. 또한, 여성자영업자의 연간소득, 주간소득 및 시간당 임금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이 여성자영업자와 여성봉급생활자가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과 근로시간, 소득 등의 직업특성과 직종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중심으로 Devine은 여성들이 자영업과 봉급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즉 개인의 취업능력과 가족 중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계획과 취업 결정 시점의 직종별 인력수급과 임금을 등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와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여성취업자 중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취업특성 면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이 취업대안으로서 봉급생활과 자영업 중 한가지를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인다.

2. 직업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직업만족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태로서(Locke, 1976),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은 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만족은 전체 생활만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직업에서 얻는 유익이나 만족은 직업 외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보다 높다는 Juster(1985)의 연구결과를 통해 직업이 개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직업 뿐 아니라 부인, 어머니,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혼여성의 직업만족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하여 갈등관계 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Jones, 1978).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는데, 개인의 인적 자본과 직업 특성, 그리고 가정적 책임을 들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는 개인의 인적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개인의 교육, 기술 등의 인적 자본에 따른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에 의해 경제활동이 좌우되기 쉬운 것이다(Becker, 1975). 또 임금수준, 직업의 종류, 근로시간 등의 직업요소가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에서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과 같은 여성적 책임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난다(Mincer, 1969; Heckman, 1974).

인적자본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직업만족도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표시한다는 연구(Vollmer & Kinney, 1955)가 있는 한편 교육수준은 직업만족도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력을 모두 준다는 연구도 있다(Mottaz, 1984). 이는 교육이 직업에서 내적 또는 외적 보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업만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증가시키므로 직업만족을 감소시

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혼취업여성들의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 및 미래 전망이 직업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며(김정훈 등, 1996), 본인의 소득 뿐 아니라 남편의 소득이나 가계소득과 같은 가계의 경제상태가 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가계의 현재 경제상태나 미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과 같은 경제인식은 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는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기혼취업여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양호한 건강상태는 이들의 직업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용희 등(1987)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취업기혼여성의 건강상태에 따라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유무 또는 자녀수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자녀로 인한 노동부담, 일과 가정간의 갈등은 직업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김용희 등(1987)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직업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소득원수는 가계소득과 정적 관계를 가지므로, 소득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lleberg(1974)는 소득과 직업만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수준은 직업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이었으며,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는 본인의 소득이었다. 또한 김혜연 등(1999)의 연구에서는 평균임금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취업자의 근로임금을 비롯한 소득 및 가계소득 등 소득관련요인은 직업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기혼여성은 취업으로 인해 가정역할과 취업자 역할의 이중역할부담을 갖게 되며, 이는 한정된 시간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나 직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간갈등의 경험 정도에 따라 직업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 직업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시간의 양과 작업량이었다. 즉, 주당노동시간이 적고, 시간갈등을 느끼지 않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근무시간의 양 뿐 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기혼여성의 직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연하게 근무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역할양립의 불가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경, 1994; Kelly et al., 1984). 한편, 직장의 위치와 관련하여 취업자가 출퇴근을 하는가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가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융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재택근무자에 관한 선행연구(Aronson, 1991; Beach, 1987; 박미혜 등, 1999)에서는 재택근무자들은 시간사용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심리적 보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출퇴근시간의 절약 및 시간의 융통성에서 얻는 주관적인 보상감이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개인적 특성 및 고용특성이 매우 다르고, 또한 취업조건 및 소득 등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기혼취업여성의 지위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인적 특성 및 취업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가계특성, 그리고 직업관련요인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 여성봉급생활자와 기혼 여성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가계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혼 여성봉급생활자와 기혼 여성자영업자의 직업관련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기혼취업여성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320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 중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자료 중 기혼여성이 봉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최종표본은 봉급생활자 176명, 자영업자 123 명의 총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가계특성, 직업관련특성과 직업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및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취업기혼여성 전체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직업만족도	(수입만족도+안정성만족도+근무시간만족도+업무내용만족도+근무환경만족도+장래성만족도)
수입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안정성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근무시간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업무내용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근무환경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장래성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독립변수	
취업주부의 개인적 특성	
연령	1=35세 미만 2=35-44세 3=45-54세 4=55세이상
교육수준	1=초등학교이하 2=중학교졸업 3=고등학교졸업 4=대학이상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양호함 0=양호하지 않음
현재경제인식	지난 1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태 1=매우 나빠졌다 3=비슷하다 5=매우 좋아졌다
미래경제전망	내년의 경제상태 대한 인지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5=매우 좋아질것이다
가족 및 가구의 특성	
자녀수	함께 거주하는 자녀수(명)
소득원수	함께 거주하는 가구내 총소득원수(명)
거주지역	1=서울특별시 2=광역시 3=중소도시 4=군부지역
6세이하 자녀여부	1=있음 0=없음
7-18세 자녀여부	1=있음 0=없음
19세이상 자녀여부	1=있음 0=없음
주택소유여부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1=자가 0=임대
직업 관련요인	
주당작업시간	직업에 종사하는 주당시간
출퇴근여부	직장출퇴근 여부 1=출퇴근 0=재택
직업소득	직업을 통해 얻는 순소득(만원)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령이 약 40세, 자영업자의 경우 약 41세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참고). 그러나 자영업자 중 55세 이상자의 비율이 13%로 봉급생활자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연령의 제약이 없는 자영업의 특성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년수는 자영업자의 집단에서 약간 높았다. 건강상태는 봉급생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봉급생활자 집단에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봉급생활자는 군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94%로 대부분이 도시거주자인 반면, 자영업자 중에서는 군부지역 거주자가 18%에 달했다. 이는 군부지역에서는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

〈표 2〉 기혼취업여성의 개인 및 가족/가구 특성

		봉급생활자(176)		자영업자(123)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 령	35세미만	51	28.98	32	26.02	1.394
	35-44 세	70	39.77	50	40.65	
	45-54 세	39	22.16	25	20.33	
	55세이상	16	9.09	16	13.01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45	25.57	25	20.33	1.167
	중학교	45	25.57	35	28.46	
	고등학교	58	32.95	43	34.96	
	대학교이상	28	15.91	20	16.26	
건강상태	양 호 함	148	84.09	91	73.98	4.611*
	양호하지 않음	28	15.91	32	26.02	
거주지역	서 울	43	24.43	33	26.83	12.725**
	광 역 시	50	28.41	29	23.58	
	중소도시	73	41.48	39	31.71	
	군부지역	10	5.68	22	17.89	
자녀연령 ^a	6세이하	28	17.72	26	22.61	1.802
	7-18세	65	41.14	50	43.48	
	18세이상	65	41.14	39	33.91	
주택소유 여 부	유	115	65.34	66	53.66	4.136*
	무	61	34.66	57	46.34	
		봉급생활자(176)		자영업자(123)		t value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세)		40,739	9.132	41,545	9.222	0.748
교육수준(년)		9,994	3.840	10,236	3.653	0.546
현재경제인식(1-5점)		2,580	0.705	2,512	0.881	-0.733
미래경제전망(1-5점)		2,903	0.630	2,967	0.677	0.840
자녀수(명)		1,790	0.936	1,943	0.862	1.440
소득원수(명)		2,136	0.608	2,049	0.612	-1.222

* 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무자녀표본은 제외되었음

되어 있어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수나 자녀연령의 경우도 집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봉급생활자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비율이 현저히 낮아, 기혼여성이 자녀양육과 직업을 양립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주택소유상태는 차이가 있어 봉급생활자인 경우 자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이들의 현재 가계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미래의 경제전망은 현재경제인식보다 낙관적인 수준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기혼여성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직업관련 특성

직업관련특성(표 3 참고)으로서 출퇴근여부는 봉

<표 3> 기혼취업여성의 직업관련요인

		봉급생활자(176)		자영업자(123)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퇴근 여부	출퇴근	171	97.16	62	50.41	92.003***
	재택	5	2.84	61	49.59	
직업 ^a	제조업	75	42.61	4	3.25	10.252*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10	5.68	71	57.72	
	숙박/음식업	11	6.25	18	14.63	
	운수/통신/금융업	26	14.77	2	1.62	
	서비스업 ^b	54	30.68	28	22.76	
		봉급생활자(176)		자영업자(123)		t value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만족도(6-30점)		17,699	3.874	16,764	3,700	-2.091*
수입만족도(1-5점)		2,670	0.729	2,520	0,782	-1.701
안정성만족도(1-5점)		3,102	0.849	2,959	0,843	-1.436
근무시간만족도(1-5점)		3,028	0.965	2,593	1,015	-3.755***
업무내용만족도(1-5점)		3,040	0.897	2,911	0,941	-1.201
근무환경만족도(1-5점)		3,028	0.916	2,976	0,945	-0.484
장래성만족도(1-5점)		2,830	0.935	2,805	0,816	-0.236
근무시간(시간/주당)		52,528	16,563	65,840	25,850	5.391***
직업소득(만원)		1124,131	634,123	1517,463	1101,277	3.896***

* 변수에 따라 응답자수는 차이가 있음

a 무응답자는 제외되었음

b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음

급생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봉급생활자 중 대부분이 출퇴근자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출퇴근과 재택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은 재택근로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기혼 여성이 근무시간과 공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하면서 직업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봉급생활자 중에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약 43%를 차지하였던 반면, 자영업자 중에서는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 종사자가 과반수를 넘으며, 그 다음으로 숙박/음식업 종사자도 약 15%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김태홍(2000)의 연구에서 여성 자영업자

의 업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9.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소매 및 수리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은 전형적으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의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더 만족하였다. 직업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근무시간 만족도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봉급생활자의 근무시간 만족도가 자영업자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약 52시간, 자영업자는 약 65시간으로 자영업자가 무려 13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근무시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더 높았다. 이는 Devine (1994)의 분석에서 미국의 여성자영업자의 시간당 임금 및 주간소득, 연간소득이 봉급생활자보다 낮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인데,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여성자영업자는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향이 크거나 계절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미혜 등(1999)이 기혼 여성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고용 재택근무자와 자영 재택근무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자영 재택근무자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여성자영업자는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으로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과 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전체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에서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현재경제인식,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의 소득원수와 거주지역, 주당근로시간과 직업소득으로 확인되었다. 기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 집단, 중졸 이하 집단, 그리고 고졸 이하 집단에서 각각 직업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에서의 내적 또는 외적 보상의 가능성이 증가됨으로써 직업만족이 높아진다는 김용희 등(1987)의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직종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이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취업했을 때 직업만족도가 더 높았던 한경미(1995)의 연구결과에서

시사되듯이 현재의 경제상태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목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직업에 전념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혼취업 여성의 건강상태는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혼취업여성의 직업과 가사노동의 이중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계내의 소득원수는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총소득이 높지 않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원수와 관련하여 총소득 및 소득원당 평균소득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지역이 군부지역인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직종분포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관련 특성 중에서는 주당근로시간과 직업소득이 영향을 미쳤는데, 주당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 근무시간의 양이 직업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로서, 기혼여성의 이중역할부담에 따른 노동특성으로 보인다. 직업소득은 직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선행연구(Kelleberg, 1974; 조희금, 1999; 김혜연 등, 1999)에서 임금 및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취업여성 중 봉급생활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가족 및 가계특성 중 소득원수, 그리고 직업관련특성으로서 주당근로시간과 직업소득으로 확인되었다. 즉, 봉급생활자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자의 직업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효과와 심리적 보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의 건강상태는 전체 취업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

<표 4>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혼취업여성(299)		봉급생활자(176)		자영업자(123)	
	B	β	B	β	B	β
연령	-0.000	-0.001	0.026	0.060	-0.066	-0.157
교육수준(대학교이상)						
초등학교이하	-2.321**	-0.255	-2.636*	-0.297	-0.935	-0.099
중학교 졸업	-1.655*	-0.191	-1.717	-0.192	-1.333	-0.162
고등학교 졸업	-1.536*	-0.190	-1.517	-0.184	-1.696	-0.218
현재경제에 대한 인식	0.620*	0.125	0.357	0.065	0.662	0.155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	-0.446	-0.075	0.027	0.004	-0.518	-0.191
건강상태(양호)	1.371***	0.313	1.188***	0.257	1.595***	0.395
자녀유무(유)						
6세이하	0.424	0.049	0.860	0.098	-0.635	-0.077
7-18세 미만	-0.236	-0.031	-0.216	-0.028	-0.512	-0.069
18세이상	0.734	0.092	0.895	0.112	0.198	0.025
소득원수	-0.974**	-0.154	-1.317**	-0.207	-0.479	-0.078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1.157	-0.131	-0.364	-0.040	-1.980*	-0.234
광역시	-0.745	-0.086	-0.763	-0.090	-0.527	-0.061
중소도시	-1.781*	-0.225	-1.236	-0.157	-2.109*	-0.265
주택소유여부(자가)	0.366	0.047	0.850	0.105	-0.426	-0.057
주당근로시간	-0.030**	-0.173	-0.040*	-0.170	-0.029*	-0.204
출퇴근여부	0.698	0.074	2.980	0.128	0.513	0.069
직업소득	0.001***	0.214	0.001**	0.123	0.001*	0.206
직업(봉급생활자) ^a	0.359	0.046				
Intercept	16.803	0.000	13.974	0.000	19.211	0.000
F value	7.301***		4.943***		3.233***	
R-square	0.336		0.363		0.368	
Adj R-square	0.290		0.289		0.254	

* p < .05, ** p < .01, *** p < .001
a 전체 취업주부 표본에만 적용함

업만족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변인이었다.

소득원수는 봉급생활자의 직업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봉급생활자의 직업소득이 자영업자에 비해 낮았던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소득원수가 많아도 가계총소득이 낮거나, 봉급생활자의 직종이 제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종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 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관련특성 중에서는 주당근로시간이 봉급생활

자의 직업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업소득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여성 중 자영업자의 직업만족에는 건강상태, 거주지역, 주당근로시간과 직업소득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는 전체 취업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군부지역에 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할 때,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할 때 직업만족도

가 낮았다. 이는 지역에 따른 자영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영업관련 직업특성 중 주당근로시간과 직업소득이 영향요인이었는데, 전체 취업여성이나 봉급생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당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소득이 많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의 경우도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자율성 뿐 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양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되며, 소득이라는 보상체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에 따라 취업상태가 매우 다르고,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조건 및 소득 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혼취업여성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인적 특성 및 취업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봉급생활자와 기혼 여성자영업자는 건강상태와 거주지역, 주택소유유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관련요인 중에서는 출퇴근여부, 직업, 근무시간과 직업소득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직업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았으며, 직업만족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근무시간만족도만이 양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만족도는 자영업자에게서 더 낮았는데, 이는 주당근로시간이 더 긴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현재경제인식, 건강상태, 소득원수, 거주지역과 주당근로시간, 직업소득이었으며, 봉급생활자의 경우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소득원수, 주당근로시간 및 직업소득이,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상태와 거주지역, 주당근로시간, 직업소득이 각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여성의 직종에 따라 연령 및 교육수준, 경제인식 등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의 자녀수 및 자녀연령, 소득원 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직종과 관계없이 기혼여성의 노동특성이 매우 동질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혼여성들의 취업기회가 미혼여성이나 남성에 비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개인적 특성이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봉급자와 자영업자 중 어느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둘째, 기혼취업여성의 직업관련요인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 봉급생활자 중에는 출퇴근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자영업자 중에서는 출퇴근자와 재택자가 반반으로 거의 동일하며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근무시간이 많고, 직업소득이 많았으며, 직업만족도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낮았다. 이는 취업유형에 따라 직업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직업만족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근무시간만족도만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기혼취업여성에게 근무시간이 매우 중요한 취업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와 주당근로시간, 직업소득은 전체 취업여성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중에서도 건강상태는 전체 기혼취업여성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만큼 기혼여성의 취업과 이중노동부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근로시간은 직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므로 이들의 직업만족도 향상과 근로복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소득은 생계유지나 가계경제의 향상을 위해 취업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상이며,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직접, 간접의 보상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모든 취업자에게서 중요한 만족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교육수준은 전체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영업에 진입하는 데는 교육수준이 봉급생활자에 비해 직업선택 또는 고용의 조건으로 엄격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은 봉급생활자의 직업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봉급생활자를 수요하는 노동시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매우 동질적인 성격을 띄며, 군부지역의 경우 봉급생활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군부지역의 노동시장의 한계는 정책적 차원에서 인근도시와의 연계개발의 형태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는 직업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인적자본인 건강상태와 주당근로시간 및 직업소득의 직업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교육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봉급생활과 자영업 중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직업수행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퇴근여부와 같은 직업특성은 출퇴근과 재택의 장단점, 즉 출퇴근시간의 절약, 재택근무의 근로시간의 융통성 및 자녀양육과의 병행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기혼 여성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여부가 어느 집단의 직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 봉급생활자 중 재택근무자가 매우 적고, 자영업자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연장되거나 이중노동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재택근무로 인한 장점과 효과가 희석되는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변수 선정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즉, 기혼취업여성의 연구대상을 취업형태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만 구분하였으나, 각 직종 내에서도 소득의 차이 및 재택유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는 산업별, 업종별에 따른 다양한 비교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의 취업동기 및 자기통제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취업자의 특성 이외에 직업특성으로서 기업의 규모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 취업을 결정할 때 고용될 기업의 규모 및 재정적 신뢰도 등의 기업재정요인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직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다 세분화시킨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광인숙·이경희(2000), 소규모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7), 27-37.
- 2) 김순미·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3) 김순미·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 4) 김용희·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기혼·미혼여성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1-27.
- 5)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11(1), 79-109.
- 6)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7) 김혜연 등(1999), 취업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성별에 따른 취업실태,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직업만족에 의한 성차별적 작업조건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12), 125-140.
- 8)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109-140.
- 9) 문숙재·김지희·Ramona, K. Z. Heck(1998), 재택근무가정의 실태 및 개념적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207-224.
- 10) 박미혜·박명희(1999),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관리행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 지 37(4), 1-16.
- 11) 이경희 · 김순미 · 김혜연 · 김성희 (2000)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8(4), 143-161.
 - 12) 조희금(1998),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67-180.
 - 13)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지* 37(2), 145-158.
 - 14) 한경미,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15) 통계청(1999), 경제활동조사.
 - 16) Aronson R. L.(1991),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Y: ILR Press.
 - 17) Beach, B.(1989), *Integrating Work and Family Life: The Home-Working Famil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8) Bregger, J. E. (1996),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January/February, 3-9.
 - 19) Devine, T. J. (1994),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March, 20-34.
 - 20) Jones, A. P. & Butler, M.C.(1980), A role transition approach to the stresses of organizationally induced family role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367-376.
 - 21) Locke, E.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D,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22) Mottaz, C.(1984), Education and work satisfaction, *Human Relation* 37(11), 985-1004.
 - 23) Seybolt, J. W.(1976),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work alienation and work satisfaction measur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4), 193-202.
 - 24) Wiegel, D. J., Wiegel, R. R., Berger, P.S., & DelCampo, R.(1995), Work-family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life: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4(1), 5-28.